

아일랜드 여성의 영국 이주: 윌리엄 트레버의 『펠리시아의 여정』을 중심으로*

오길영

I

이 논문의 목적은 20세기 후반부의 중요한 아일랜드 작가 중 한 명인 윌리엄 트레버(William Trevor)의 장편소설 『펠리시아의 여정』(*Felicia's Journey*, 이하 『여정』)을 이주(migration), 특히 아일랜드 사람들의 영국 이주의 시각에서 살펴보는 것이다. 논의과정에서 작가도 밝혔듯이 이 작품의 모티프에 강한 영향을 끼친 제임스 조이스(James Joyce)의 작품들, 특히 단편 「에블린(Eveline)」과의 영향 관계도 주목할 것이다(Estévez-Saá 33, Río-Álvaro 5). 하지만 두 작품을 단순 비교하는 서술방식은 택하지 않는다. 서로 다른 역사적 배경을 지닌 두 작품은 장편소설과 단편소설이라는 차이만큼이나 다른 시대적 배경에서 비롯된 캐릭터 형상화가 나타난다.

* 이 논문은 2019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9S1A5A2A03041720).

당연한 말이지만 펠리시아는 에블린이 아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 인물은 아일랜드와 영국이 맺었던 착잡한 역사와 결부되어 세기 전환기 식민지 아일랜드, 그리고 영국에서 독립한 지 꽤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이민 문제 등에서 강한 유착 관계를 맺고 있는 여러 양상을 비슷하게, 혹은 다르게 보여준다. 그런 공통점과 차이점은 두 여성 주인공만이 아니라 그들이 맺는 가족, 애인 관계에서도 나타난다. 본론에서 세부적으로 살펴 보겠지만 펠리시아가 영국에서 밝은 여정은 대략 100년 전 식민지 아일랜드를 떠나지 못했던 에블린이 만약에 탈출을 감행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를 알려준다. 그렇게 보면 두 작품은 시대를 달리하는 여성의 초상(a portrait of Irish women)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¹⁾

이 논문의 주요한 토픽인 이주의 문제는 작가의 삶과도 관련된다. 작품이 작가 삶의 직접적 반영은 아니지만, 작품과 작가의 삶이 맺는 관계를 아주 도외시할 수도 없다. 트레버는 가톨릭 국가인 아일랜드에서 프로테스탄트 집안의 자녀로 태어났고, 그것은 작가에게 이방인의 자의식을 갖게 한다. “제자리를 벗어났다는 느낌이 강해졌지요. . . . 저는 잦은 이사 때문에 우리가 더 주변적인 존재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중의 이방인이었으니까요. 가톨릭 세계에 사는 신교도였고, 신교도의 중심지와도 멀었죠”(Wachtel 75). 펠리시아와 같은 노동자 계급 이주민은 아니었지만, 작가 자신도 영국에서 살고 글을 쓰면서 영국-아일랜드 사이의 경계에 선 독특한 시각을 갖게 되었다. 이런 점은 『여정』에서도 나타난다. “이제는 차이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겠어요. 그것이 제 글에 확실히 영향을 주었습니다. 글을 쓰기 위해서는 사람들과 거리를 두고 이방인이 되어야 하는데, 저의 배경이 거리 두기에 도움을 준 것 같습니다. 이방인이 되는 것, 그것이 제가 글을 쓸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Wachtel 74).

1) 이런 관점은 미국 풀리처상 수상작인 마이클 커닝햄(Michael Cunningham)의 『세월』(*The Hours*)에서 영감을 얻은 것이다. 이 소설에서 커닝햄은 80여 년에 걸친 시간대를 놓인, 다른 시대를 살았던 세 여성의 삶을 조명한다. 그런 시간의 흐름 속에서 여성의 삶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혹은 변화하지 않았는지를 보여준다.

이런 이방인의 감수성이 각기 다른 의미에서 펠리시아와 힐디치 같은 독특한 캐릭터 형상화를 낳는다.

이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는 펠리시아가 겪게 되는 영국 이주의 과정을 다룬다. 그런 분석을 위해서 아일랜드 이민, 특히 영국으로의 이주 역사를 짧게 검토한다. 두 번째 부분은 영국-아일랜드 관계에서 영국을 대하는 펠리시아를 비롯한 아일랜드인들의 태도와 관점을 분석한다. 세 번째 부분은 작품의 또 다른 강력한 캐릭터인 힐디치라는 인물의 의미를 따져본다. 그와 함께 영국-아일랜드 관계에서 아일랜드를 대하는 종교단체의 시각을 살펴본다. 그런 분석을 바탕으로 왜 작가가 힐디치와 종교단체 같이 평범하지 않은 인물들을 등장시켰는지를 따져볼 것이다. 끝으로 작품의 결말을 분석한다. 아일랜드를 떠나지 못한 에블린과는 달리 펠리시아는 아일랜드를 탈출해서 영국으로 이주한다. 그 이주의 의미를 분석한다.

II

1980년대~90년대를 배경으로 한 『여정』에서 트레버는 펠리시아가 영국에 건너가 겪게 되는 경험의 여정에 초점을 두지만, 펠리시아의 경험을 단지 한 아일랜드 여성의 특수한 이주 경험이라고 할 수는 없다. 펠리시아의 여정을 입체적으로 파악하려면 아일랜드인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고국을 떠나게 되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이런 이주의 역사에는 영국의 아일랜드 점령과 착취과정이 배경으로 작용한다. 영국의 아일랜드 지배의 분수령이 된 17세기 크롬웰(Oliver Cromwell)이 주도한 아일랜드 점령과정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크롬웰을 중심으로 한 군 평의회는 아일랜드 원주민들을 제거해 버릴 것인지, 혹은 토지의 권리만 박탈할 것인지를 놓고 토론했다. 그 결과 1652년에 아일랜드 정주법이 만들어지면서 지주제도가 정착되었다. 잘 알려진 “신교도 지배층”(the Protestant

Ascendancy)의 성립과정이다. 이런 결정을 하게 된 이유는 현실적으로 아일랜드 원주민의 도움 없이는 빼앗은 땅을 경작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확정된 구획지가 개발자를 대체하고 흩어져있는 단일 농장들이 결집된 정주지 혹은 촌락을 대신했다. 그 결과 상업적 경작지와 농업 노동이 증대되었다. 아일랜드 땅을 영국계 지주 계급에게 무자비하게 이양한 데는 거대한 지적 측량 사업이 요구되었다. 이렇게 땅을 빼앗긴 아일랜드 원주민들은 강제 이주에 동원되었다. 그들은 아일랜드 안에서뿐만 아니라 대서양 전역에 걸쳐 영국 영주들의 영지들로 보내졌다. 크롬웰은 수천의 아일랜드인들을 자메이카로 보냈다. 또 1천여 명의 아일랜드 노예들이 1610년에 스웨덴에 팔려나갔다. 성인 남성의 육분의 일인, 약 34,000명의 사람이 1649년 정복의 결과 아일랜드로부터 실려 나가 팔려 갔다(Linebough & Rediker 123). 널리 알려진 19세기 중엽 “대기근”(the Great Famine)보다 훨씬 오래전부터 아일랜드인들의 강제적인, 혹은 자발적으로 보이지만 식민지 상황의 압박에 따른 이주가 이뤄졌다.

아일랜드인들이 경험했던 해외 이주의 최종 목적지는 다양하다. 가장 잘 알려진 곳은 미국, 호주 등이었다. 현재 미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이민자 집단이 아일랜드계 미국인(the Irish American)으로 전체 미국 인구 중 약 10분의 1인 3,300만 명 정도를 차지한다. 2014년 현재 5천만 명 정도로 가장 많은 숫자인 독일계 이주민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이주민 집단이다(Datesman 181). 하지만 그만큼 많은 아일랜드인이 가까운 나라인 영국으로 이주했다.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인 이유였다(Panayi 25). 『여정』의 배경인 대략 1980년대부터 이주 숫자를 따져보면 1980년대에만 약 45만 명이 이주했다. 그들은 펠리시아처럼 대부분 “비숙련 노동자들”(the semi-skilled or unskilled economic groups)이었다. 이런 이주 경향은 그 뒤에도 비슷하게 이어져서 1990년대에도 비슷한 숫자의 이주가 이뤄진다. 2021년 현재 아일랜드에서 태어나 영국으로 건너온 이주 1세대 아일랜드인 숫자는 약 40만 명이다. 그 결과 “토박이 아일랜드인들이 아닌 아시아계 아일랜드인이나 흑인 아일랜드인들”(non-indigenous Asian Irish and

black Irish people)을 포함해서 2016년 기준으로 그들의 조부모 중 최소한 한 명이 아일랜드인인 영국인들의 숫자가 6백만 명 정도로 추산된다. 이 숫자는 전체 영국 인구의 약 10%를 차지한다. 이런 이주의 경향으로 아일랜드 이주민들은 영국을 다르게 경험하는 과정을 거쳤다(Crangle 6). 펠리시아의 여정에는 이런 이주의 역사가 배경으로 깔려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1980년대~90년대에 이주했던, 펠리시아를 비롯한 아일랜드인들은 비숙련 노동자가 다수였다. 『여정』에도 나오듯이 아일랜드인들은 영국에서 무시당하며 이등 시민 취급을 당했다. 영어 억양에서부터 영국인과 구분되었기에 영국 국민의 정체성을 지닌 북아일랜드인들조차도 아일랜드인으로 불리며 차별받았다.

그날 아침 이 도시에 도착하고부터, 펠리시아는 “낯선 억양”(an accent that is unfamiliar) 때문에 사람들의 말을 잘 알아들을 수가 없다. 심지어 그들이 되풀이해서 말해 줘도 이해하기 어려워서 때로는 포기하게 된다. 산업단지에서 그녀는 길을 물으려 사무용품을 파는 한 건물에 들어간다. . . . 그곳에서 일하는 여자가 대답한 말의 절반은 알아듣지 못했지만 상관없었다. (14)

“아일랜드 영어”(Irish English)와 “영국 영어”(British English)가 그 억양의 차이 때문에 “말을 잘 알아들을 수 없”다는 대목은 비영어권 독자에게는 의아스러운 대목이다.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입장에서 두 언어의 섬세한 차이를 파악하기 어려운 대목이지만, 작가는 여기서 의도치 않은 영국 이주민으로서 펠리시아가 겪게 되는 차이점을 부각시킨다. 한마디로 아일랜드인들은 그 “낯선 억양”에서부터 외국인으로 간주된다. 이런 점은 뒤에 살펴보겠지만 펠리시아를 대하는 힐디치(Mr. Hilditch)의 태도에서도 나타난다. 작품이 전개되면서 연쇄살인범으로 밝혀지는 힐디치가 펠리시아를 대하는 태도가 구별되는 이유는 펠리시아가 아일랜드 이주민이라는 점이다. 연쇄살인 대상이 되었던 다른 여성들과 펠리시아를 다르게 느끼는 힐디치의 태도를 주목해야 할 이유다. 남들의 눈에 띄지 않는 존재라는

점에서 헨디치는 자신과 유사한 처지에 놓인 펠리시아에게 묘한 친화감을 느낀다.

그렇다면 펠리시아가 아일랜드를 떠난 이유는 무엇인가? 당겨 말하면 『여정』은 ‘여정’이라는 제목을 달았다는 점에서 전통적인 성장소설(Bildungsroman)의 인상을 주지만 실제 내용은 그렇지 않다. 펠리시아가 변모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성장이라기보다는 새로운 상황에 적응한 결과다. 혹은 그녀만의 방식으로 살아남기 위한 노력의 결과다. 표면적으로 펠리시아가 아일랜드를 떠나는 것은 그녀가 남자친구라고 믿는 조니(Johnny)를 찾기 위한 것이지만, 그 배경에는 「에블린」이 그렇듯이 보수적이고 엄격한 아버지와 오빠들, 증조할머니와의 관계에서 오는 억압이 작용한다. 여기서도 젊은 여성에게 가족은 사랑과 보호의 울타리라기보다는 주체적 삶을 옥죄는 틀로 작용한다. 펠리시아는 명료하게 의식하지 못하지만, 그녀가 상상하는 조니와의 사랑은 사랑이라기보다는 탈출과 생존의 다른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점을 「에블린」도 오래전에 보여줬다.

그녀는 갑작스러운 공포에 이끌려 벌떡 일어났다. 도망치자! 도망쳐야 해! 프랭크가 그녀를 구원해줄 것이다. 그가 그녀에게 삶을 줄 것이다. 아마 사랑도. 참으로 그녀는 살고 싶었다. 왜 그녀가 불행해야 하나? 그녀는 행복할 권리가 있다. 프랭크가 그녀를 두 팔로 껴안고, 꼬옥 감싸줄 것이다. 그가 그녀를 구원해줄 것이다. (Joyce 33)

「에블린」에서 에블린이 기대하는 프랭크와의 사랑이 의심스럽듯이, 『여정』에서 조니를 대하는 펠리시아의 관점도 그녀만의 주관적인 착각일 가능성이 크다. 작가는 펠리시아를 대하는 조니의 내면과 생각을 전달해주는 장면을 단 한 곳도 할애하지 않는다. 그런 생략은 펠리시아가 상상하는 ‘사랑’ 관계가 착각일 가능성을 명확하게 해 준다.

둘이 함께 있는 것만이, 둘의 사랑만이 구원을 가져오리라 그녀는 그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안다. 크리스마스가 지나고, 그가 돌아오지 않았을

때 그녀는 그 사실을 깨달았다. 1월에 눈이 내렸을 때 그녀는 그 사실을 깨달았다. 2월 첫 주가 되어 세찬 바람이 불었을 때, 그의 어머니를 만나러 갔을 때 그녀는 그 사실을 깨달았다. (45)

펠리시아는 “둘이 함께 있는 것만이, 둘의 사랑만이 구원을 가져오리라” 믿고 자신은 “그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안다”고 결론짓지만, 이런 판단은 점차 그녀만의 착각으로 판명된다. “몸을 돌린 순간 마주친 지나가던 남자의 시선. 그가 미소를 지어 그녀 역시 미소로 답하던 순간 나중에 펠리시아는 생각했다. 바로 그때 알았다고 그것이 사랑의 시작”(18)이라고 생각하는 펠리시아에 대해 서술자는 거리를 유지한다. 트레버는 3인칭 시점에서 종종 펠리시아의 견해를 전달해주는 간접 자유 화법(*free indirect style*)을 능란하게 구사하는데, 펠리시아를 1인칭 서술자로 삼지 않는 이유는 펠리시아와 힐디치를 초점 화자로 삼는 경우 서술자가 이들 캐릭터에 대해 거리를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트레버는 펠리시아의 시점이 아니라 제3자인 힐디치의 시점에서 펠리시아가 보지 못하는 맹목 지점을 드러낸다. 펠리시아와 힐디치의 관계를 단순하게 대립 관계로만 보서는 안 되는 이유다(Parker 146).

어쩌면 그녀 아버지가 군대에 대해 한 말이 사실일지도 모른다. 십중팔구 그녀는 새파란 깡패와 엮였고, 그 깡패는 절호의 기회를 노리고 있다가 기회가 오자마자 낚은 것이다. (66)

힐디치 씨는 단번에 그를 알아본다. 단정한 검은 머리, 녹색 빛이 도는 눈, 도드라진 광대뼈. 힐디치 씨가 여러 번 들은 묘사에는 없었던 모습도 있다. 교활함이 깃든 눈, 한쪽 입꼬리를 치켜올리며 다 안다는 듯한 미소를 짓는 입, 갓 자란 콧수염. 힐디치 씨는 확신이 들 때까지, 청년의 이름이 불리는 것을 들을 때까지 기다린 후 구스 앤드 갠더(Goose and Gander)에서 그가 선택한 구석 자리의 어둠 속으로 몰려나 앉는다. 이곳은 올드 힌리(Old Hinley) 부대 막사 근처 술집 가운데 그가 첫 번째로 들어온 곳으로, 듀크 오브 웰링턴 로드에서 이십 분 정도 거리에 있다. (176)

조니에 대한 펠리시아 아버지의 판단을 두고 단지 딸을 옆에 두는 것이 편하다는 가부장적 욕심으로만 단정하기는 힘들다. 어쨌든 딸을 둔 아버지가 경험한 그 나름의 경험에서 나온 예리한 판단이기도 하다. 이런 점은 「에블린」에서 에블린을 유혹하는 프랭크를 대하는 아버지의 판단을 떠올리게 한다. 조이스처럼 트레버도 아버지가 지닌 양가적 태도를 세심하게 포착한다.

그는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재수 좋게 한밑천 잡았고, 이젠 그냥 휴가 삼아 본국에 다니러 온 것이라고 말했다. 물론 그녀의 아버지는 그 일을 알아챘고 그와 얘기도 하지 말라고 그녀에게 명령했다. “뱃놈들이란 게 뻔해.” 그가 말했다. 어느 날 아버지는 프랭크와 다투었고 그 이후 그녀는 애인을 비밀리에 만나야 했다. (Joyce 32)

힐디치가 조니의 본색을 “단번에 알아본” 이유는 두 사람이 비슷한 종류의 인간이기 때문이다. 물론 이런 묘사도 힐디치의 시점에서 나온 것이라는 것에 유의해야 하지만 자신이 군인이라는 것을 감춘 조니의 태도를 고려하면 힐디치의 판단이 경솔하다고 하기도 힘들다. “교활함이 깃든 눈, 한쪽 입꼬리를 치켜올리며 다 안다는 듯한 미소를 짓는 입, 갓 자란 콧수염”(176) 등의 묘사는 힐디치 나름대로 조니가 어떤 부류의 인간인가를 파악한 증거다. 힐디치라는 인물이 단순치 않은 이유다.

III

앞서 언급했듯이 펠리시아가 아일랜드를 떠나 영국으로 온 것은 그녀가 의식적으로 인지하듯이 조니에 대한 주관적인 사랑(의 착각) 때문만은 아니다. 펠리시아는 명료하게 인지하지 못하지만 두 가지 이유가 더 있다. 트레버는 그 점을 섬세하게 드러낸다. 먼저 아일랜드의 좋지 않은 경제적 사정이 작용한다. 작품에는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지만, 펠리시아는 제대

로 교육받지 못한 비숙련 노동자다. 그녀가 택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은 수녀가 되는 것이다.

“너는 순결을 지키며 사는 삶에 대해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니, 펠리시아?” 언젠가 수녀원장님이 불쑥 물었다. 나중에 카멀과 로즈에게 그 이야기를 해주었더니 그들은 펠리시아에게 수녀의 얼굴이 있다고 말했다.” (21)

이런 부분은 조이스의 『젊은 예술가의 초상』(*A Portrait of the Artist as a Young Man*)에서 스티븐 디덜러스에게 성직을 권하는 장면을 떠올리게 한다. 스티븐과 비교해볼 때 젊은 여성인 펠리시아에게는 수녀로서의 삶이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작용한다는 점이 다르다. 조니와 만나서 나눈 대화에서 펠리시아를 비롯한 당대의 비숙련 여성 노동자가 처한 상황이 드러난다.

그는 주로 혼자 다녔고, 그리스도교 형제단 학교를 졸업한 후에는 더블린으로 갔다가 곧 영국으로 떠났다. 그의 말투에 영국 억양이 배어 있었다. “잘 지내.” 그가 말했다. “너는 어때, 펠리시아?” “일자리를 잃었어요.” “육가공 공장에 다니지 않았나?” “공장이 문을 닫았어요.” 그가 다시 미소를 지었다. (22)

지난 삼 개월 동안 일없이 지냈으며, 적어도 인근에서는 취직될 가망이 안 보인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 경력이랄 게 통조림 만드는 일뿐이었고, 별다른 기술이 필요 없는 일이긴 해도 그녀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재빠르게 일할 수 있었으며 잘못 봉해진 통조림을 찾아내는 눈썰미도 길렀다. (23)

『여정』은 사회 문제를 직접적으로 다루는 사회파 소설은 아니지만, “경력이랄 게 통조림 만드는 일뿐이었고, 별다른 기술이 필요 없는 일”밖에 할 수 없는 펠리시아의 상황은 그녀가 아일랜드를 떠나게 만든 중요한 배경이다.

두 번째는 가족의 문제다. 여기에는 펠리시아가 생활하는 현재 시점만이 아니라 아일랜드와 영국 사이에 있었던 식민 역사가 작용한다. 펠리시아의 가족은 반(反)식민 투쟁의 역사를 안고 있다.

칠십오 년 전, 노인의 남편이 된 지 한 달 된 이가 두 동지와 함께 아일랜드의 자유를 위해 목숨을 바쳤다는 사실은 아버지의 끈질긴 고집으로 가족 내에서 하나의 진실로 숭상되어왔다. 그 비극으로 노인은 앞으로 태어날 아이와 함께 빈곤한 처지에 놓였고, 남은 인생을 사무실과 가정집 바닥을 닦아 번 돈으로 먹고살아야 했다. 그러나 그 고생도 오랜 대의에 대한 믿음이 있어 고귀하게 여겨졌다. . . . 증조할머니가 몇 안 되는 소지품과 함께 간직하고 있다가 스크랩북이 더 안전하다고 판단해 거기에 보관해둔 것이다. 그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패트릭 피어스의 1916년 4월 24일 자 임시정부 선언문을 손으로 베껴 쓴 필사본으로, 서명 일곱 개가 모두 법원 서기 같은 필체로 쓰여 있었다.

(25-26)

이 대목들에는 사실과 해석의 경계에 대한 미묘한 지점이 있다. “노인의 남편이 된 지 한 달 된 이가 두 동지와 함께 아일랜드의 자유를 위해 목숨을 바쳤다”는 것은 “사실”인가? 아니면 “오랜 대의에 대한 믿음”에서 나온 허구인가? 서술자는 언뜻 보기에는 사실처럼 보이는 내용이 어찌면 “아버지의 끈질긴 고집으로 가족 내에서 하나의 진실로 숭상”되었을지 모른다는 점을 펠리시아의 시점에서 부각시킨다. 그러므로 펠리시아를 위해서는 것처럼 보이는 다음의 발언도 역시 그 진의를 따져봐야 한다.

아버지는 이번에도 느리게 고개를 끄덕였고, 말을 할 때도 서두르지 않는 어조를 유지했다. 그는 근거 없는 소문은 없다며 이렇게 덧붙였다. “그 녀석보다 나은 청년들이 주위에 있잖니, 애야. 아일랜드 젊은 이들은 아일랜드에 있어야 한다.” “조니는 여기서 일자리를 못 찾아서 영국으로 간 거예요.” “영국군은 북쪽으로 파견될 수도 있어. 그 녀석이 우리 민족을 죽이게 될지도 모른다고.” (54)

아일랜드와 영국 관계를 여전히 대립적으로 파악하는 아버지의 판단은 자신이 믿고 있는 “대의”가 옳다는 것을 전제한다. 그런데 현실에서 중요한 것, 특히 젊은이들에게 더욱 중요한 것은 “일자리”의 문제다. “우리 민족”이라는 거창한 관념은 그 관념을 지탱하는 구체적 근거가 빈약하다. 오히려 펠리시아를 떠나지 못하게 붙잡아 두려는 아버지의 욕망은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

그것은 아버지가 그녀에게 원하는 바였다. 아버지는 펠리시아가 때과 이어 피그스에 취직하기에는 자격이 부족했다는 사실에 오히려 안도했다. 그녀가 파트타임으로 일하게 되면 실직 상태를 벗어나면서도 계속 집안일을 도맡아 하고 아버지와 아직 결혼하지 않은 오빠들을 위해 식사 준비를 할 수 있을 터였다. 그러나 슬리브 블룸에서처럼 종일 일하면 퀴글리 부인에게 돈을 주고 낮 시간에 노인을 돌봐 달리고 부탁해야 한다. 그는 이미 다 생각해놓았다. (28)

이 대목은 「에블린」에서 에블린과 아버지의 관계를 거의 그대로 반복한다. 아버지가 딸을 곁에 두려는 것은 딸의 앞날을 걱정해서가 아니다. 펠리시아가 집에 머무는 것이 “집안일을 도맡아 하고 아버지와 아직 결혼하지 않은 오빠들을 위해 식사 준비”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조니를 “한 점령군 놈”이라고 단정하는 아버지의 판단은 다른 욕망의 결과라고 봐야 한다.

네가 이 집에서 사는 한 점령군 놈과 어울려서는 안 된다. 우리 집안은 뭐가 중요한지 알고, 늘 그래왔어. 네 증조할아버지와 애국자 동지들은 이 작은 마을을 떠나 전장의 한가운데로 갔고, 용감하게 싸우다 목숨을 잃었다. 팔 세기 동안, 한 시간도 빼놓지 않고 꼬박, 그 긴긴 세월을 아일랜드 사람들은 오직 언어와 종교와 인간 자유의 억압을 받으며 살아야 했다. (58)

“증조할아버지와 애국자 동지들”을 들먹이는, 얼핏 보기에 거창해 보이는

아버지의 주장은 살기가 힘들고 마땅한 일자리를 구할 수 없는 펠리시아가 처한 상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결과다. 펠리시아의 여정은 단지 사랑을 찾아가는 표면적 서사만이 아니라 지금까지 살펴본 다른 심층적인 이유가 작용한 결과로 봐야 한다.

IV

「에블린」에서 모티프를 가져왔지만 『여정』이 날카롭게 에블린과 갈라지는 지점은 힐디치라는 독특한 캐릭터다. 힐디치는 프랭크보다 훨씬 병적이고 그로테스크하다. 지금까지 영국(인)을 대하는 아일랜드 사람들의 시각과 감정을 살펴봤지만, 펠리시아가 받을 디던 영국인들은 어떤 태도로 아일랜드(인)를 대하는가? 『여정』이 제기하는 중요한 쟁점인데 트레버는 평범한 영국인이 아닌 힐디치라는 연쇄살인범을 등장시킨다. 그리고 일종의 온정주의의 시각에서 펠리시아를 대하는 독특한 종교집단이 힐디치와 구별되는 시각을 전한다. 둘 다 평범하지 않은 존재들이다. 그렇다면 이런 인물과 집단을 등장시킨 이유를 따져볼 필요가 있겠다.

펠리시아의 형상화에 비해 작가는 오히려 힐디치라는 중년 남성을 좀더 입체적으로 그린다. 여기서도 트레버는 3인칭 서술 시점을 사용하지만 내용적으로는 힐디치를 초점 화자로 삼는 1인칭 서술기법을 쓴다. 평범하지 않은 캐릭터인 힐디치의 내면을 드러내는 방법이다. “그가 만들어낸 정상적인 겉모습 아래에서는, 장면들이 스쳐 지나가고 목소리들이 말을 한다”(189). 힐디치에게는 부자연스러운 측면이 존재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 점을 간파하지 못한다. 마치 펠리시아가 왜 힘겨운 여정을 떠났는지를 이해하려는 이들이 없는 것처럼 힐디치도 다른 이들에게는 스쳐 지나가는 대상으로 여겨진다. 그 점에서 펠리시아와 힐디치는 사회적으로 눈에 띄지 않는 인물들이며, 힐디치가 펠리시아를 다르게 대하는 이유다. 어떤 의미에서든 연쇄 살인자인 힐디치를 옹호할 수는 없지만, 그가 느끼는

고독감은 그것 나름의 호소력을 지닌다. 펠리시아와 힐디치는 다른 맥락에서 고독하다.

주방과 작업장 사람들은 하나의 결론에 도달했다. 오랫동안 그들과 일상을 함께한 정이 많은 사람, 구내식당 매니저가 어떤 알 수 없는 질병으로 고통받았다는 것이다. 그는 의사들이 보여준 당혹감이 암울한 예후를 뜻한다고 믿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203)

힐디치가 자살을 선택했을 때 아무도 그 삶을 이해하지 못한다. 그의 삶과 죽음은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질병” 탓으로 환원된다.

『여정』은 이렇게 남들에게 보이는 힐디치의 외적 모습과 아무도 알 수 없는 내면 사이의 격차를 부각시킨다. 힐디치는 공장의 구내식당 매니저로 일한다. 그는 겉으로는 평범하고 상냥하고 친절하게 보인다. 그러나 힐디치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있다. “홀로 있을 때면 종종 내면 깊이 존재하는 다른, 더 어두운 면에 가닿곤 한다”(19쪽). 힐디치가 지닌 “어두운 면”이 무엇인지에 대해 독자의 궁금증을 유발하고, 그런 어두운 면이 펠리시아와의 관계에서는 어떻게 작동하는지가 이 작품을 이끌어가는 서사의 동력으로 작용한다.

아일랜드 소녀가 이 모든 기억을 일깨운다. 새로운 친구가 항상 그러듯 그녀가 그런 것도 당연한 일이다. 기억의 뒤안길은 늘 그곳에, 늘 그늘진 채로, 때론 완전히 어둠에 파묻혀 있고, 그러다 무언가가 그곳에 불을 밝힌다. 힐디치 씨는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이 좋다. 그것을 기억의 뒤안길이라 부르는 것이 좋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크게 소리 내어 말하지는 않지만 어떤 것은 크게 소리 내어 말하지 않는 법이고, 또 어떤 것은 심지어 혼잣말로도 말하지 않는 법이다. (42)

이 서술은 단조로운 듯 보이지만 힐디치가 갖고 있는 “기억의 뒤안길”이 상징적이고 범상한 것이 아니라는 걸 서늘한 톤으로 전달한다. 힐디치가 생각하는 “새로운 친구”는 무슨 뜻일까? 어떤 의미에서 힐디치가 살해했

던 여성들은 힐디치에게 “친구”로 여겨졌던 것일까? 그런데 힐디치의 기억은 “완전한 어둠”에 묻힌 것이다. 힐디치 자신도 어두운 기억을 자주 끄집어내지는 않는다는 뜻이다. 그에게 기억은 일종의 기호품 채집을 위한 저장고 같은 역할을 한다. 그런 면에서 힐디치가 기억하고 있는 “새로운 친구”들, 즉 힐디치가 살해한 것으로 드러난 여성들과 힐디치가 맺은 관계는 실제적인 것이 아니다. 그 관계에 대한 힐디치의 관념, 혹은 기억이 그에게는 중요하다. 그리고 다시 새로운 수집 대상, 혹은 “새로운 친구”인 펠리시아가 등장했을 때 어두운 기억은 환기되고 새로운 기억이 추가된다.

정리하자면 힐디치에게는 심각한 내면적 결핍이 존재하며 그 결핍을 채우기 위한 대상이 필요하다. 더 정확히 말하면 대상과 맺은 관계에서 생기는 “기억”이 중요하다. 그가 매번 새로운 (살인의) 대상, “새로운 친구”를 찾는 이유다.

그들이 그를 기억하는 것은 젊은 여자들 때문이다. 한 젊은 여자, 그다음에는 다른 젊은 여자, 그리고 이번엔 또 새로운 젊은 여자다. 그것도 임신 중인. 짧은 순간 쾌감이 그의 내면 어디선가 피어오르는 것을 느끼며 그는 플라스틱 용기를 들고 다시 테이블로 돌아간다. (119)

따지고 보면 엽기적인 연쇄살인마이지만 작가는 힐디치의 살인 행각을 사실적으로 묘사하는 데는 큰 관심이 없다. 실제로 작품에서도 그런 엽기 행위에 대한 선정적인 묘사는 나오지 않는다. 작가가 의식적으로 절제한 결과다. 작가의 관심은 그런 행위 자체가 아니라 힐디치라는 영국 중년 남성이 어떻게 탄생했는가를 포착하는 데 있다. 펠리시아가 젊은 아일랜드 여성의 “전형”(type)이 아니듯이, 힐디치를 중년 영국 남성의 전형이라고 규정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펠리시아가 그렇듯이 독특한 개성을 지닌 인물로서 힐디치가 보여주는 여러 면모를 개인적인 상황으로만 설명하기는 힘들다. 사회 역사적 관계에 얽힌 영국인의 무의식이 작동한다는 걸 작가는 천착한다. 앞서 언급했듯이 힐디치는 남들은 알지 못하는 내면의 결핍을

안고 있다. 그리고 그 결핍은 병적인 양상을 지닌다.

우정이 끝나면 힐디치 씨는 늘 이런 식으로 고통을 겪는다. 어렴풋이 뭔가를 잃어버린 것 같다고 인식하고는 상실감이 너무나 커서 기억에 착란이 일어나는 거라고 여긴다—그들이 떠난 순간이 매번 너무나 고통스러워 자신의 무의식이 그와 관련된 상황의 세부 사항을 지워버렸다고, 처음에, 베스(Beth)가 떠났을 때, 그는 이 기억의 착란이 걱정되어 그 순간으로, 그 당시 상황으로 돌아가 보려 애를 썼다. 그러나 성공하지 못했고 그 후로는 자신이 겪은 기억의 소멸을 자비의 선물로, 심지어는 자신의 비밀스러운 영역, 물어보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영역으로 받아들이기로 했다. (159-60)

『여정』에는 힐디치에게 희생된 여성들의 묘사는 전혀 나오지 않는다. 힐디치의 시점에서 희생자들의 이름이 언급될 뿐이다. 그런 묘사에서 희생자들은 살아있는 생명체가 아니라 사물처럼 대상화된다. “뭔가를 잃어버린 것 같다고 인식한 상실감”은 힐디치의 주관적인 느낌일 뿐이며, 이때 상실된 대상은 마치 물건처럼 다가온다. 힐디치는 “베스가 떠났”다고 생각하지만, 이때 베스라는 여성의 존재는 살아있는 인간의 의미가 아니다. 힐디치가 느끼는 존재의 공허감을 채워주는 대상에 불과하다. 이런 힐디치의 태도는 유별난 데가 있지만 『여정』에서는 펠리시아의 가족, 조니, 그리고 뒤에 살펴보겠지만 펠리시아에게 온정을 베푸는 종교단체 인물들 모두 비슷한 시각을 공유하고 있다는 점도 살펴야 한다. 다른 인간을 대상이 아니라 고유한 생명력을 지닌 존재로 보지 않고 사물이나 대상으로 취급한다는 점이 그렇다. 펠리시아도 그런 대상 중 하나다.

작가는 힐디치가 느끼는 공허감에는 영국과 아일랜드 사이의 착잡한 지배/종속의 역사가 깔려있다는 걸 제시한다. 다른 존재를 대상화하는 가장 강력한 메커니즘 중 하나가 식민주의이기 때문이다.

그날 밤 열두 시 오 분 전, 힐디치 씨는 천천히 침실로 향하는 계단을 오른다. 윌프 삼촌(Uncle Wilf)은 제일차세계대전 후 아일랜드로 갔다.

무장봉기를 진압하기 위해서였고, 극적일 것 없는 그만저만한 군대 이야기 한두 가지를 가지고 돌아왔다. 그는 십이 년쯤 전 여든여덟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는데, 그 나이에도 여전히 프랑스와 벨기에에서의 소규모 접전들이며 아일랜드에서의 폭동 단속 등 군대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다. 힐디치 씨는 어린 시절 윌프 삼촌의 이야기를 듣다가 입대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났고, 그 소망은 자라면서 점점 더 커졌다. 그러나 막상 때가 되자 시력과 발 때문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0)

펠리시아의 가족에게 아일랜드 독립운동에 참여한 것이 사실 여부를 떠나서 거창한 대의가 된 것처럼, 힐디치에게 윌프 삼촌의 삶은 무의식적으로 깊은 영향을 미쳤다. 삼촌의 영향을 받아 “입대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기 때문이다. 아일랜드 “무장봉기”를 진압하고 “아일랜드에서의 폭동 단속”에 참여했던 윌프 삼촌의 “군대 이야기” 혹은 영웅담에 대해 힐디치는 동의하는 태도를 취한다. 짐작건대 이런 공감은 힐디치만이 아니라 영국인들 전반이 아일랜드를 대하는 태도라고 해석할 수 있다. 힐디치는 윌프 삼촌처럼 군대에 입대하려 시도하는데 그 계획은 좌절된다.

모병관은 장애가 있는 신병 지원자가 병참 장교 직을 문의하다니 가소롭다고 여기는 듯했고, 그러한 생각을 숨기려는 최소한의 노력조차 하지 않았다. 힐디치 씨는 시력과 발과 관련된 그 두 가지 사소한 결함 때문에 어린 시절부터 내내 당연히 하게 되리라 여겼던 직업에서 배제당했다. (147)

힐디치의 기괴한 행적에는 그가 겪었던 이런 좌절도 작용한다. 그의 “사소한 결함”이 자신보다 약한 여성들에 대한 지배 욕구를 낳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런 배경에서 보면 펠리시아를 대하는 힐디치의 태도를 단지 개인적인 차원에서만 설명할 수는 없다. “난 아가씨 나라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펠리시아, 친척 한 사람이 그 나라에 대해 자주 이야기하곤 했지요. 아름다운 나라라고, 그렇게 이해했어요”(62). 힐디치는 아일랜드를 마

치 먼 나라처럼 이야기하며 “아름다운 나라”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공허한 언급이다. 그 점을 힐디치도 알고 있다.

이제 그녀의 눈에는 전에 존재했던 열정은 모두 사라지고 죽음의 기운이 드리워져 있다. 그녀는 떠나온 집 한구석에 주저앉아 쓸모없는 남자를 영원히 기다리는 여인으로 시들어갈 것이다. 블랙 앤드 탠스(Black and Tans)는 아일랜드섬을 처리했어야 했다고, 인도적 이유로 그러지 못한 것이 유감스럽다고 윌프 삼촌은 말했다. 단어 선택에 신중을 기하며 그 모든 이야기를 하면서도 블랙 앤드 탠스 이야기는 그녀를 자극할 것을 우려하면서 꺼내지 않았다. (149)

힐디치는 아일랜드 무장봉기 진압을 위해 만들어진 특수부대인 “블랙 앤드 탠스는 아일랜드섬을 처리했어야” 한다는 윌프 삼촌의 말을 떠올린다. 그러면서도 자신의 견해를 직접적으로 밝히지는 않는다. 그러나 바로 앞 구절에서 펠리시아의 미래를 상상하며 “별 볼 일 없는 남자를 영원히 기다리는 여인으로 시들어갈 것”이라고 상상할 때 바로 그런 여인의 모습과 아일랜드를 등치 시키려는 관점을 읽을 수 있다. 윌프 삼촌과 마찬가지로 힐디치에게 “인도적 이유”를 내세우는 것은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감상주의로만 여겨질 것이다.

강력한 캐릭터인 힐디치에 비교하긴 어렵지만, 펠리시아를 대하는 영국인의 태도를 보여주는 주요한 그룹이 인도주의를 내세우는 종교단체다. 작품에서 이 종교단체가 정확히 어떤 성격인지는 드러나지 않는다. 그리고 힐디치와 이들 그룹 사이에는 미묘한 차이와 갈등이 발생한다.

힐디치 씨는 그들을 본 적이 있다. 미치광이들, 이라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그는 거리에서 그들이 사람들에게 억지로 책자를 안기는 것을, 종교 이야기로 귀찮게 하는 것을 보았다. 어떤 식으로든 그 여자가 그들과 엮혔고 그들의 집에서 묵고 있는 것이 확실하다. 그녀가 그 집으로 들어가는 걸 보았으니까. 아일랜드 촌구석에서 온 순진한 여자아이라면 그들이 어떤 제안을 하든 쉽게 넘어갔을 것이다. (90)

힐디치가 종교단체 사람들을 “미치광이들”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역설적인데 그 자신도 정상이라고 보기는 힘들기 때문이다. 작품에서 힐디치의 종교적 성향이 어떤지는 명확히 나오지 않지만, 그가 보기에 “그들”은 “종교 이야기”로 사람들을 귀찮게 만드는 이상한 집단이다. 힐디치의 판단은 나름대로 예리한 데가 있다. 이 작품의 미덕은 사악한 살인자로만 볼 수 있는 힐디치가 지닌 여러 측면을 입체적으로 형상화한 것이다. 힐디치는 “그들이 펠리시아에게 접근한 이유를 “아일랜드 촌구석에서 온 순진한 여자아이라면 그들이 어떤 제안을 하든 쉽게 넘어갔을 것”이라고 날카롭게 파악한다. 이런 인식은 힐디치도 공유하는 것이며 더 나아가서는 당대 영국인들이 일반적으로 “아일랜드 촌구석”을 바라보는 시각이라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흑인 여자는 계속 주절주절 무어라 말하고, 젊은 여자 역시 자신의 뒹을 하는 듯 입술을 움직인다. 토끼같이 생긴 이 아이의 삶은 어떨까? 힐디치 씨는 생각한다. 이 아이는 저 흑인 여자처럼 종교적이지 않다. 생각해보지 않아도 그냥 알 수 있다. 그저 어딘가 갈 곳을 의지할 데를 찾느라 이들에게 합류했을 뿐이다. 이 아이는 무언가로부터 도망치고 있다. 그게 눈에 훤히 드러난다. 그런데 이 아이가 이 미친 인간들과 함께 지내면서, 안내 책자를 들고 허튼소리나 하며 돌아다니면서 남은 인생을 살아간다면, 대체 이 아이의 삶은 어떻게 될 것인가?
(184)

힐디치는 이들 종교집단을 “미친 인간들”이라고 규정하는데 이런 판단이 지나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들이 펠리시아를 대하는 태도가 진심 어린 이해나 공감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걸 고려하면 전혀 틀린 판단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힐디치는 이들 종교단체가 “그저 어딘가 갈 곳을 의지할 데를 찾느라” 궁지에 몰린 이들의 처지를 이용하고 있다는 점을 짚는다. “캘리거리는 멀리서 녹색과 검은색이 섞인 쇼핑백 두 개와 피곤으로 굽은 어깨를 살펴본다. 여기 행복하지 못한 사람이 있군, 캘리거리는 속으로 생각하며 여자를 모임으로 인도하기 위해 성큼성큼 걸어간다”(127). 종

교단체에서 일하는 캘리거리는 펠리시아를 보고 “행복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쉽게 단정한다. 그런 단정은 펠리시아의 처지를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결과를 낳는다. “미친 인간들”이라는 점에서는 힐디치와 종교단체는 통한다. 힐디치가 종교집단의 성격을 파악하듯이, 종교단체도 힐디치가 누구인지를 알게 된다.

이 남자 미쳤군, 마사 티비츠(Marcia Tibbitts)는 생각한다. 집집마다 돌아다니기 시작한 후로 이런 적은 처음이다. 캘리거리(Miss Calligary)는 이런 일에 경험이 많기에, 지금 막 들은 이야기에 모종의 진실이 담겨 있음을 알아차리고 곧 이 남자가 겉보기와는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그가 자신의 입으로 고백하자 그녀는 너무나 놀라 말문이 막힌다. 그는 가증스러운 목적으로 아이의 돈을 훔쳐 아이가 다른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게 만들었다. 캘리거리는 자신이 제대로 들은 게 맞는지 확실히 확인하려 다시 한번 말해달라고 부탁한다. (199)

일상생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섹슈얼리티와 종교의 측면에서 뭔가 어긋난 캐릭터인 힐디치와 종교단체 인물들을 작가가 주목한 이유는 펠리시아 같은 외부인을 대할 때 영국인이 보여주는 인식이 지닌 한계를 드러내려 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펠리시아의 여정에서 그녀를 이해해주는 인물이 작품에 나오지 않는다는 점이 그 점을 부각시킨다. 펠리시아는 그녀의 고향인 아일랜드에서도, 그리고 그녀가 헛된 사랑의 대상인 조니를 찾아온 영국에서도 고립되어 있다. 그렇다면 펠리시아가 걸어온 여정의 결말은 무엇인가?

『여정』에 영향을 준 「에블린」에서 에블린은 결국 아일랜드를 떠나지 못한다. 펠리시아는 다르다. 그녀는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영국에 왔다. 그녀는 찾으려 했던 조니와의 사랑은 결실을 맺지 못했고 정착지를 찾지 못한 거리 부랑자의 삶을 살게 된다. 앞서 언급한 비숙련 여성 노동자의 전형적인 행로라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펠리시아가 도달한 영국의 삶이 비극적이라고 봐야 하는지는 의문이다. 작가는 펠리시아의 새로운 삶의 모

습을 긍정적으로 묘사하기도 한다.

펠리시아는 그런 추측에 굳이 반박하지 않았다. 이젠 사람들이 하는 말에 익숙해졌다. 무슨 말을 하든 개의치 않는다. 그녀는 이제 예전의 자신이 아니라는 걸 안다. 가을날 결혼식 신부 들러리도 아니고 자동차 뒷좌석에서 담요를 뒤집어썩던 아이도 아니다. 한때 그녀의 것이던 순수함은 시간이 흐르며 이제 어리석음이 되었지만, 여전히 그녀에게 남아 있고, 상실을 경험한 예전의 그녀는 지금의 자신으로 이끈 사람이기에 소중하다. (207)

이 문장에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펠리시아가 어떻게 변모했는지를 포착한다. 구체적으로 펠리시아가 지금의 어떤 삶에 도달했는지를 보여주지는 않지만, 펠리시아는 이제 “예전의 자신이 아니라는 걸” 안다. 『여정』이 주체성을 지닌 인물로 변모해가는 펠리시아의 여정을 좀 더 깊이 있게 보여주지 않은 건 아쉽다. 하지만 결말에서 작가는 펠리시아가 무엇을 잃고 무엇을 얻었는지를 인상적으로 요약한다. 그녀는 더 이상 “신부 들러리”나 “아이”도 아니다. 그녀가 지녔던 “순수함”은 역설적인 의미에서 “어리석음”과 결합된 순수함으로 남아 있다. 결론적으로 그녀는 “상실을 경험”했지만, 이제 자신의 삶을 사는 주체적 존재가 되었다. 이런 펠리시아의 모습은 영국에서, 혹은 어떤 나라에서이든지 그 사회에 존재하는 주변적인 존재들의 모습으로 확장된다.

얼빠진 멍청이, 아무 데나 떠도는 바보, 피로감 섞인 동정 한 조각이 거리의 사람을 향해 던져지고, 눈길은 서둘러 다른 데로 옮겨간다. 다른 도시도 있을 테고, 다른 도시의 거리와 도로도 있을 것이다. 태피와 조지, 리나, 케브, 다보, 멍청한 해나들도 있을 것이다. 자선단체와 보호소가, 자비와 경멸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항상 어디에나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을 가르는 운명이 존재할 것이다. (213)

펠리시아 같은 “거리의 사람”은 어느 나라, 도시에나 다른 이름을 지닌 채

존재한다. 그들은 멍청이, 바보로 취급된다. 그들에게는 “자선단체와 보호소가, 자비와 경멸”이 기다린다. 그런데 이런 묘사에서 드러나는 톤이 부정적이지만은 않다. 트레버는 “거리의 사람”들이 처한 사회적 상황을 냉정하게 인식하지만 그런 상황에 놓인 펠리시아 같은 사회적 소수자가 지닌 품격을 부정하지 않는다. 그런 품격은 남들의 “피로감 섞인 동정”과는 관계없는 것이다. 펠리시아의 여정을 통해 작가가 상기시키고자 하는 인간다운 품격의 의미다.

(충남대)

Works Cited

- Commons Library. "The Irish diaspora in Britain." *Commons Library Debate Pack*, 17, March 2022, pp. 3-4.
- Crangle, Jack. *Migrants, Immigration and Diversity in Twentieth-century Northern Ireland: British, Irish or 'Other.'* Palgrave, 2022.
- Cunningham, Michael. *The Hours*. Picador, 2000.
- Datesman, Maryanne, et al. *American Ways: An Introduction to American Culture*. 4th ed., Pearson Education, 2014.
- Estévez-Saá, José Manuel. "James Joyce's Influence on Contemporary Irish Writers." *University of Bucharest Review*, vol. XII, no. 2, 2010, pp 29-37.
- Joyce, James. *Dubliners*. Penguin Books, 1992.
- Linebough, Peter & Marcus Rediker. *Many-Headed Hydra*. Beacon P, 2001.
- Panayi, Panikos. *An Immigration History of Britain: Multicultural Racism Since 1800*. Routledge, 2014.
- Parker, Michael. "The Power of Withholding: Politics, Gender and Narrative Technique in *Felicia's Journey*." *William Trevor: Revaluations*, edited by Paul Delaney and Michael Parker, Manchester UP, 2013.
- Río-Álvaro, Constanza Del. "William Trevor's *Felicia's Journey*: Inherited Dissent or Fresh Departure from Tradition?" *Estudios Irlandeses*, no 2, 2007, pp. 1-13.
- Trevor, William. *Felicia's Journey*. Penguin Random House, 1994.
- Wachtel, Eleanor. *More Writers & Company*. Vintage Canada, 1996.
- The Guardian, "More Britons applying for Irish passports."
<https://www.theguardian.com/uk/2006/sep/13/britishidentity.travelnews>
 Accessed 21 May 2023.

Abstract

Irish Women's Migration to the UK:
A Reading of William Trevor's *Felicia's Journey*

Gilyoung Oh

This article aims to examine the novel *Felicia's Journey* by William Trevor, one of the most important Irish writers of the second half of the twentieth century, from the perspective of migration, specifically focusing on the migration of Irish people to England. I will also pay careful attention to the influence of James Joyce's works, especially the short story "Eveline," which, as the author reveals, strongly influenced the motifs of this novel. However, this paper does not simply compare the two works, insofar as the two works are set in different historical contexts, and their characterization is as much a result of their different periods as it is the difference between a novel and a short story in the literary genre. Felicia, of course, is not Eveline. At the same time, however, they are both representative of turn-of-the-century colonial Ireland as well as Ireland in the late 20th century, yet tied to the troubled history of Ireland and Britain. Ireland demonstrates itself in Trevor's novel as a country that has long since gained its independence from Britain, but still has strong ties to it, especially in the area of immigration.

This essay is organized as follows. The first part deals with the migration process to Britain that Felicia goes through. In order to analyze this, I examine the history of Irish migration, particularly to Britain. The second part elaborates on the attitudes and perspectives of the Irish, including Felicia, towards Britain in Anglo-Irish relations. The third part delves into the meaning of another powerful and grotesque character Hilditch. In addition, I scrutinize

the religious institution's view of Ireland in Anglo-Irish relations. In doing so, I consider why the author introduces such unconventional characters as Hilditch and the extraordinary religious group. Finally, this essay analyzes the ending of the novel. Unlike Eveline, who cannot leave Ireland, Felicia escapes Ireland and moves to England.

■ **Key words** : James Joyce, Ireland, England, Migration, William Trevor, Anglo-Irish Relation

(제임스 조이스, 아일랜드, 영국, 이주, 윌리엄 트레버, 영국-아일랜드 관계)

논문접수: 2023년 05월 25일

논문심사: 2023년 05월 25일

게재확정: 2023년 06월 15일